

光日春秋

고원정



오는 12월 대통령선거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결국 누가 당선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선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느냐는 점을 생각해보고 하자.

우선 4년 중임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민의 지지도가 높지 않은 대통령이 하필 임기말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역풍을 맞고 말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거론한 4년 중임제 개헌은 이론상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5년 단임제를 근거로 하는 '87년 체제'는 이제 청산해야만 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5년 단임제는 타협의 산물이었다고 그 타협의 주역들은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년 단임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졸졸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난 20년의 정치사는 상당부분이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은 취임 초기 과도한 의욕에 사로잡히기 쉽다. 5년이란 시간은 생각보다도 짧고, 다시는 선거를 치르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재평가를

받아서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크다. 무언가 업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조바심은 결국 많은 무리수를 두게 만든다. 더 이상의 표가 필

다.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근거인 '경험'을 단임제의 대통령은 혼자 가슴에 한으로 물러나야만 한다.

다음으로 내각제가 아닌 순수 대통령제를 고수할 생각이라면 부통령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국무총리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위상에 너무 차이가 난다. 만에 하나 대통령 유고시에 정치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하기가 쉽지 않다. 가령 지난 1979년 10·26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정 2인자였다면 상황은 달라

해보았으면 한다. 지금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경선을 통해 후보가 가려지겠지만, 이른바 범여권의 경우 그 이름을 다 떠올리기도 힘든 군웅할거의 판도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아직 감이 잡히질 않는다. 과연 단일화가 가능할 지도 의문이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도 있다. 소속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사람들을 한 무대에 올려놓고 열에서 대어섯으로, 다시 두었으로, 하나로 압축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후보들이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처를 입을 것이겠는가? 선거만을 의식한 무리한 단일화가 화학적 결합에 이르지 못할 경우의 부작용 또한 우리는 많이 겪어보지 않았던가. 결선투표제는 이런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단일화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정치공작을 펼치고 답합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최종 당선자는 당연히 50% 이상의 지지를 받게 된다. '4차 필승론' 때의 해묵은 담론들도 효력을 잃게 된다.

생각해보자. 6월 항쟁으로 이루어낸 '87년 체제'가 4년 중임제에 정·부통령제,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채택했다면? 늦었지만 다음 정권에서는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만 한다. <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에 대한 희망 사항

요하지 않기에 국민들과 함께 가려 하지 않고 앞서가거나 가르치려 든다. 다행히 잘 나갈 때는 좋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랬듯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지도가 하락하면 5년 단임제는 최악의 상황을 빚어낸다. 모든 것에 의욕을 잃은 식물대통령이 되거나 '역사가 평가한다'는 식의 독선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겨주어야 할 것은 넘겨줄 준비를 해야 할 임기말이 이전투구의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이유다. 5년단임제는 당사자에게는 가혹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흔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예외가 아닐 것이

지지 않았을까? 현재의 총리로는 일단 유사시 국정의 연속성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부통령제는 차기 주자를 키울 수 있고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 출사표를 던졌거나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을 한 번 살펴 보자. 아직 대통령감은 아니지만 부통령이라면 적임자일 것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이 무모하게 대선가도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부통령 혹은 부통령 후보라는 중간단계를 거친다면 개인으로서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국가로서는 더 많은 인재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고려

시설

'문화수도 광주' 걸맞은 기반 확충 서둘러야

문화관광부의 '2006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민의 97.7%가 클래식 공연을 한차례도 관람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품 전시와 연극도 각각 90.8%, 89.7%가 관람하지 않았다. 지역 문화회관을 방문한 사람도 9%에 지나지 않았다. 문화중심도시, 예향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광주가 '순수공연 불모지'가 된 것은 공연장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문화에 호가층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 상품도 이를 전시할 공간이나 향유할 관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특히 문화 애호가층의 빈약은 광주 문화의 토양을 더욱 척박하게 하고 있다.

광주가 명실 공히 문화중심도시가 되려면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 폭을 넓히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역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 문화공연이나 전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해 이들의 문화 마인드를 키워줘야

한다.

미래의 문화 애호가 육성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문화와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달에 한번이라도 온 가족이 공연을 관람하고, 초·중·고생이 전시장을 찾는다면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는 물론 지역 문화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연장 등 지역 문화시설에 대한 가족단위 관람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문화상품을 전시할 공간이나 향유할 관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특히 문화 애호가층의 빈약은 광주 문화의 토양을 더욱 척박하게 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과 함께 문화의 시대다. 지역 브랜드라는 것도 그 지역의 문화적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민의 문화 향유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광주가 진정한 문화중심도시로 서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산하기관 도덕적 해이 해도 너무 한다

정부 산하기관들의 부실·방만경영이 도를 넘어섰다. 감사원은 95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11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새삼스런 현상은 아니지만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감사원이 밝힌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행태는 충격적이다. 예산편성과 집행, 조직 및 인사관리, 산하기관 지도·감독 등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민간기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스스로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 기관은 인건비 잔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4년간 33억여원을 부당 집행했다. 또 다른 기관은 계약내용보다 적게 납품받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조성한 1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간부 개인용도로 노조 집행부에 향응을 제공하는데 사용했다. 승진 대상자가 심사위원에 포함돼 1급으로 승진하는 사례까지 있었다니 할 말이 없다.

사장 등 간부들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신규사원 16명을 채용한 곳이 있었고 공사의 업무량이 줄어드는데도 조직편성을 하지 않아 215개 지사중 113개 지사가 적자운영을 하는 기관도 있었다. 급여에서부터 복지후생, 용역계약 등에 이르기까지 '주인 없는 조직'의 병폐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경영행태를 살펴보면 '혁신'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공기업 등의 도덕적 해이는 그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없이 지적됐다.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부실경영을 뿌리뽑겠다고 다짐했으나 그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정부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언제까지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감시할 것인가. 엄정한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을 대폭 수축하고 민영화할 것은 과감히 민영화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공기업의 조직 이기주의를 방지해선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란 비야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한국이 꼭 본 따기를 바라는 가장 부러운 것을 중 하나는 미국의 병원 제도다. 미국은 대략 한 도시에 한 두 개 정도의 '병원(hospital)'이 있는데 거기에 는 입원실, 수술실, 응급실, x-ray, 간호사 등이 있어 언제든지 환자를 받을 준비가 갖춰져 있다. 대부분 병원은 의사가 아닌 전문 사업가들이 주인이고 응급실 이외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의사는 편리한 곳에 간단한 '사무실(office)'을 차려놓고 환자를 진료하다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병원'으로 이송시켜 매일 회진을 하며 치료한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방에 입원해 있다 하더라도 환자마다 담당 의사가 다르다. 의사는 청진기 하나와 진찰실 몇 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개업 시작에 큰 부담이 없다. 또 도시 전체에 수술실 장비나 x-ray 기계 같은 고가장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만약 전문의사가 허버드 같은 좋은 학교 나왔다고 빼간다면 주치의가 그를 좋아 할리 없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의사사회에선 출신교를 따지는 일은 전연 없고 다만 좋은 인간 관계만이 중요할 뿐이다. 환자들도 자기 의사의 학벌에는 전연 개의치 않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만 신뢰한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내가 있을 당시는 한국에서 의사만큼 거만한 직업인은 없었다. 젊은 의사가 나이든 중에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도 환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은 도저히 흉내 낼 수가 없을 정도다. 한국에서는 암과 같은 치명적인 상태

기고



조규일

우리나라는 해방 60년이 되도록 국립미술관은 단 하나, 파전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만이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박물관은 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역사, 문화 권역별로 산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전통박물관, 국립농업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등 전문박물관도 줄잡아 30여개에 달한다. 불행하게도 예방 광주에는 국립미술관이 없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중앙에

것이다.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광주미술관은 성격과 기능면에서 전혀 다른데 문화관광부측은 비엔날레관을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여지를 부리고 있다. 문화관광부측은 중의공원에 새로 짓고 있는 비엔날레관을 미술인들이 잘못해 빼앗긴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때 국립미술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여 광주시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지역인사들이 머릿가사로 대서 특필했다. 이후 고재우 시장 재임시 700억 예산

아시아문화전당에 국립미술관을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서야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도심 외곽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작품 감상을 하고 싶어도 접근성이 떨어져 아예 포기하고 만다. 하루 종일 광주시립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은 손꼽을 정도로 소수다. 이 때문에 미술인들은 현재의 중의공원에 미술관을 짓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옛 전남도청이나 중앙초등학교 자리를 원했던 것이다. 외국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들을 가보면 구 왕실이나 구 시정을 리모델링해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덕수궁 분관을, 광주시립미술관이 금남로 분관을 운영하는 것도 도심과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분관의 지리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을 세웠는데, 국립광주미술관이란 명칭을 없애고 광주현대미술관이라고 올린 것이 국비 300억으로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지금의 비엔날레관(새 시립미술관)으로 바뀐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에는 서양화가 최초로 규관문화훈장을 받은 오지호의 상설 전시관이 있으나, 작품 수량이 적어 그의 진면목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문화 특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마스터 플랜이 이달 말까지 완성된다고 한다. 미합회장이 앞장서고 1천700여 광주미술협회회원과 시민들이 협조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내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세우자. 이 걸만이 빛다미 광주시가 부담을 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립미술관은 100%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백민미술관장>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은 피임법보다 순결교육

얼마 전 중학생인 딸로부터 "모 기관에서 실시하는 성교육 시간에 콘돔을 성기 모형에 끼우는 실습을 했는데 무척 재미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또 초등학교생들에게 피임기구를 설명해 주는 초등학교 강의를 소개하는 방송 뉴스를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마치 피임교육이 성교육의 전부인 양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피임교육이 성교육의 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안 된다. 피임교육보다 '청소년 순결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피임실습은 그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변명해도, 그러한 교육에 받은 학생의 뇌리에는 흥미 위주의 학습효과가 확대 각인되기 십상이다. 순결이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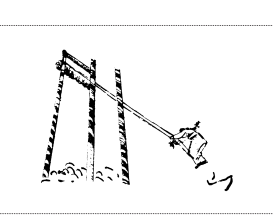
되지 않은 무책임한 피임교육은, 한창 호기심 많은 청소년기 학생에게 성관계를 용인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요즘처럼 성인영화, 인터넷 동영상 등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피임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행위는 성인이 되어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다. 성교육은 올바른 성 지식을 통해 호기심을 극복하고, 종족 번식의 숭고한 정신을 심어주며, 종족 번식 본능을 뛰어넘어 영혼을 통하는 과정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금동>

無等鼓

음력 5월5일 단오는 추서, 보름, 설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로 꼽혀 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명절의 의미는 쇠락했다. 단오는 일년 중 가장 양기(陽氣)가 왕성한 날이다. 또 눈코 뜰새없이 바쁜 모내기철을 막 끝내면서 풍작을 기원하는 5월제이기도 하다. 단오날이면 썩이나 창포를 잘라 데

음식을 먹기도 했다. 수리취 나물로 떡을 해 먹었다고 해서 '수릿날'로 불리기도 했다. 올해 전남 대표축제로 선정된 범성포 단오제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폐막했다. 이번 범성포 단오제는 오랜 역사와 유래를 조명하고 문화재로서의 지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대규모 학술 행사도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범성포 단오제



문에 내걸고 여인네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창포 뿌리를 잘라 비너 삼아 머리에 꽂기도 했다. 민속놀이로 그네 뛰기와 씨름이 널리 행해졌다. 단오는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는 무더운 여름철을 질병없이 건강하게 넘기려는 조상들의 바람과 지혜가 담겨 있다. 썩이나 창포는 향기가 짙은 약초의 일종으로 황액이나 재액을 찾아낸다는 의미다. 궁중에서는 임금이 각 지방에서 진상된 부채의 단오선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더위에 대비해 영양이 풍부하고 입맛을 돋우는

범성포 단오제는 강릉 단오제와 함께 현재 남아 있는 몇 안되는 단오제로 꼽힌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초창기였던 범성포의 단오제는 각 지역에서 모인 세곡을 한양까지 안전하게 실어나르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강릉 단오제에 비해 여진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00여 년간 지역 대표축제로 자리잡았다.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없이도 범성포 단오제의 오랜 전통과 다양한 문화자원을 잘 간직해온 주민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시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취재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처 부 2200-616	여론대우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업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비싼 관·수의가 살아 생전 효도만 할까
장례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있다. 화장을 하면서 지나치게 고가의 관과 수의를 사용하는 상가를 자주 접한다. 마지막 가는 땅을 위한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불과 몇 시간 후 길어야 24시간 후에는 불에 타 없어질 관과 수의를 꼭 고가로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가시는 분께 마지막으로도 효도를 더 하자는 마음을 모르느라 아니다. 다만 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이만한 효도, 아니 그 이상의 효도를 해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말

이다. 그리고 살아 생전에 서운하지 않을만큼 효도 했더라면 가시는 마당에 조촐하고 겸손하게 보내드려도 서로 서운치 않고 편히 보내드리고 또한 아쉬움 없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늘 하는 말이지만 살아 계실 때 잘 해 드리자. 모두 다 산소처럼 소중한 우리 부모님을 아낀다. 지금 내 부모님, 가족 형제들께 안부 전화 한통이라도 드리는 것도 좋겠다. <▲남성민·광주시 광산구 소촌동>